

110 학년도 1 학기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 (6)

주제: 근세 일본문화사와 동아시아: 한문훈독에서 유교 예의까지

중국문화대학교 110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제 6 회 강연에서는 대만대학교 일본어문학과와 전세민(田世民)교수를 초청하였다. 오늘 강연의 주제인 「근세 일본문화사와 동아시아: 한문훈독에서 유교예의까지」에 대해 전 교수는 근세 일본의 유교 예의의 발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상 문화의 대립과 조화, 사상 실천에서 왜훈은 어떤 역할을 맡는지 동아시아 문화의 전파와 상호작용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근세 일본 문화가 외래 문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근세 일본 유학 유교 예의의 전개, 섭취와 대립

전 교수는 먼저 성덕(쇼토쿠) 태자가 제정하는 헌법 17 조 중에 ‘논어’의 ‘화를 귀하게 여긴다’ 라는 말을 인용하는 예에서 ‘조화’를 중시하는 것은 일본 사람의 생활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에도 시대의 지식인들은 명, 청 시기에 출판한 한문 책 등의 통로로 중국과 한반도의 사상문화를 이해했다. 저명한 유교 철학자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도순점’과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의 ‘가점’ 등 훈점 작품 중에 일본 유교 학자들이 한문 원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유학자들은 다른 입장에서 명나라 사상을 받아들였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학자는 하야시 라잔 등이 있다. 반면에 기문학과(崎門學派)인 야마자키 안사이 등은 명나라 유교학자의 번작한 해석을 배척하며 주희의 저작을 읽으며 주자학을 이해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오사카 회덕당(에도 시대의 학교) 등 많은

학자들이 명나라의 유학을 배척하지 않고 상당히 수용하는 입장을 선택했다.

장례의례에서 명나라 문화를 수용한 일본 문화를 관찰한다-유교와 불교의 대립과 조화

전 교수는 이어서 에도 시대의 장례 제도를 소개하여 유교가 일본에 전파될 때 생긴 대립과 조화를 설명했다. 근세 일본 유교학자들은 처음에 불교에 대항하여 유교 장례 의식을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에도 시대의 ‘사청제도’에서 유교학자들은 유교적으로 장례 의식을 하기를 원했다. 명나라의 의례 문화인 주희의 ‘문공가례’를 모델로 통속화하여 불교를 대항하고자 하였다. 전 교수는 근세 일본 곳곳에서 미토(水戸)의 도쿠가와 가문(徳川家), 돗토리(鳥取)의 이케다 가문(池田家) 등 세 명 이상의 무가 관직을 가진 자들이 대형 묘비, 귀부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묘비 유적은 여전히 중국 당나라의 귀부에서 전해온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 교수는 귀부와 묘비 형식을 확인하러 일본 현지에 가서 조사한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 주순수묘(朱順水墓) 등의 유적 사진을 공유했다. 근세 전기에는 불교에 대해 강한 저항의식이 있었지만 17-18 세기 후에 불교의 장례 의식이 민간에 스며들면서 삼택석암은 절충법을 채택하여 불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교장 제례를 시행하는 등 논조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문 훈독과 왜훈-외래 문화의 내면화

한문 훈독은 원래 한역 불전을 읽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문체로 바뀌어 한문과 대등한 지위를 주장한다. 전 교수는 나카무라 하루사쿠(中村春作) 교수의 논술을 인용하여 근세 류큐(琉球)는 원래 중국 귀화자의 유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사쓰마 유교학자 박여죽이 류큐에 간 후에 왜훈(倭訓)을 위주로 한 일본 유학이 주류를 이뤘고, 또 야마자키 안사이는 왜훈회(倭訓會)를 통해 주자학(朱子學)과 신도(神道)를 통달했고, 신장제(神葬祭) 의례 책에서는 불교가 아닌 신도(神道)로 장의(葬儀)를 행하려 할 때는 왜훈을 이용하여 한문 용어를 구별하고 독특함을 추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근세 일본은 바닷길을 통해 전해온 한문 저서들이 유학 등의 학문을 통해 자신의 사상 문화를 세웠다. 다수 지식인들이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불교 세력과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유교 장례 의식을 실시하였는가에 유교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훈(倭訓)은 근세 일본이 외래문화를 자기 체계로 만들기 위한 내화 실천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이 외래문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립을 넘어 조화를 추구할 것인지도 일본과 동아시아 연구 분야 학자들이 중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웹사이트 :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번역: 진방여(陳芳仔)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